

三國史記의 服飾研究 VI
—色服의 服飾 附屬品을 中心으로—

金 鎮 玖

漢陽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A Study on the Costume Accessories of Silla
in *Sam Kuk Sa Ki* (三國史記)

Jin-G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1. 冠
I. 緒 論	2. 梳
II. 男子 服飾 附屬品	3. 釵
1. 幘頭	4. 袂
2. 腰帶	5. 帶
3. 靴, 靴帶	6. 履
4. 履	7. 襪
1) 靴履의 材料	8. 其 他
2) 皮의 種類	IV. 結 論
5. 襪	參考文獻
III. 女子 服飾 附屬品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costume accessories appeared in *Sam Kuk Sa Ki*.

The accessories of both sexes were analyzed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It was appeared that names of accessories of men were fewer in number than those of women. Men's accessories such as a hat, *bok-du*, a belt, boots, shoes, and socks were mentioned in *Sam Kuk Sa Ki*.

Women's accessories appeared such as a hat, a comb, a hair pin, a scarf, a belt, shoes, and socks.

A *bok-du*, boots, and a hard belt were used exclusively by men, while a hat, *kwan*(冠), a comb,

a hair pin, a scarf, *pyo*(裋) were worn exclusively by women. All men from different classes including true bone class as well as the common class wore *bok-du*, a hat, a hard belt, boots, socks; however, class distinctions were made from materials used for those items.

Also women's accessories were used as means of differentiating social status of the wearer by means of materials employed for each item.

Especially, woman's hat and scarf were a symbol of the noble class. Only two classes of women from the true-bone class and women from the sixth *du-pum* class were entitled to wear hats.

Wearing a scarf was not allowed to women from the common class.

Class differentiations were made by the materials used for hats and scarves.

Materials for a scarf such as gold and silver leaf, peacock tail, and king fisher fly feather were restricted to women from true-bone class.

Such as man's hat, *bok-du*(幘頭), use of women's comb and hair pin, scarf, leggings were items derived from Táng China.

It clearly showed that costume accessories of Silla were heavily influenced by the Chinese.

At the same time the costume accessories were used to make sex difference among the people of Silla.

Woman wore a soft belt made of cloth while man wore a hard belt. Woman's hat, a scarf, a comb, a hair pin, a belt or sash for a shirt, and leggings were woman's sex symbol.

Thus, costume accessories of Silla appeared in *Sam Kum Sa Ki* functioned as means of differentiating social status of the wearer such as sex, class and rank in the society. Also, they showed that Silla kingdom had close cultural relationship with Táng China.

I. 緒 論

三國史記 卷 33 雜志 第2 色服에는 新羅 服飾에 관련된 記事를 상당히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것들은 귀중한 신라복식 연구자료가 된다. 그 자료들은 여러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三國史記 卷 33 色服의 新羅服飾관련 記事 中の 服飾 附屬品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性別, 品目別로 분류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服飾 附屬品이란 옷차림을 완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의복에 더하여진 服飾 관련 品目이다. 服飾 附屬品에는 머리쓰개, 허리띠, 스카프, 신발, 장갑, 넥타이, 장식품 등이 포함된다.

女子 服飾 附屬品 中에서 褌, 袴, 襪裊는 본 研究者의 先行 研究가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II. 男子 服飾 附屬品

1. 幘頭

三國史記 色服에 新羅의 男子는 眞骨 大等에서 부터 平人에 이르기 까지 모두 幘頭를 썼던 것으로 나타난다.

興德王 服飾 禁制에서 보면 眞骨 大等만은 幘頭의 材料를 任意로 使用할 수 있게 定하고 있는데 身分階級의 차이는 幘頭의 材料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幘頭는 전형적인 唐의 冠帽로서 新羅에 流入되었고, 幘頭는 興德王代에는 이미 新羅의 모든 男子의 冠帽로 널리 變用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 新羅本紀에 의거하면 眞德女王 3年에 中國衣冠을 입기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어 그 때에 中國 制度의 幘頭가 다른 中國衣服과 함께 사용됨으로써 널리 퍼지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 이전에도 唐에 파견되었던 使臣들을 통하여 中國服飾은 賜與形式이나 贈物로 이미 新羅에 들어 왔었던 것이므로 幘頭도 함께 그 품목들 속에 들어 있었을 것이다.

新羅男子의 幘頭 形態는 唐나라의 幘頭와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幘頭色은 흥덕왕 복식금제에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唐나라 男子가 사용했던 幘頭色과 같은 黑色이었을 것이다.

幘頭 材料에 대하여 興德王 服飾 禁制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眞骨大等 幘頭任意
- 六頭品 幘頭用總羅 絁 絹 布
- 五頭品 幘頭用羅 絁 絹 布
- 四頭品 幘頭只用紗 絁 絹 布
- 平 人 幘頭只用絹 布

위에서 보면 幘頭의 材料로는 總羅, 羅, 絁, 紗, 絹, 布 등이 보이는데 階級에 따라 材料의 종류와 수량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眞骨大等은 幘頭의 재료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위에 明示된 재료뿐만 아니라 그 외의 織物이나 또는 그보다 上級에 속하는 재료도 사용할 수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 腰帶

三國史記 色服 條에 腰帶는 眞骨 大等 부터 平人 男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男子의 服飾 附屬品目으로 나타난다. 六頭品과 平人 男子의 腰帶는 腰字가 없이 帶만 있으나 이는 腰字가 누락된 것으로 생각된다.

腰帶의 材料로는 白玉, 烏犀, 鍍, 鐵, 銅 등이 나타나는데 이것들은 腰帶의 띠고리와 그 부속장식을 위한 것들이다.

男子의 腰帶는 주로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 위에 것들을 가지고 띠고리와 잠금장치나 腰帶장식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卽 男子의 腰帶는 hard belt 類였고, 그것은 表衣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라 남자의 腰帶에 대한 禁制는 다음과 같다.

- 眞骨大等 腰帶 禁 研文 白玉
- 六頭品 帶 只用 烏犀, 鍍, 鐵, 銅
- 五頭品 腰帶 只用 鐵
- 四頭品 腰帶 只用 鐵, 銅
- 平 人 帶 只用 銅, 鐵

1) 玉

興德王 服飾禁制에 의거하면 眞骨大等の 腰帶에 研文 白玉을 사용하는 것을 禁하였다. 따라서 위의 禁制후에 白玉은 王의 腰帶에만 사용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興德王 服飾禁制에 白玉은 단지 靴帶와 腰帶條에만 言及되었을 뿐이다.

흥덕왕 복식금제에 玉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보인다.

- 眞骨大等 腰帶 禁 研文 白玉
- 靴帶 禁 隱文 白玉

研文 白玉은 갈고 닦아서 무늬를 낸 白玉이고 隱文 白玉은 스민 文 白玉으로서 研文 白玉은 陽刻 文을 새긴 白玉이고 隱文 白玉은 陰刻 文을 새긴 白玉으로 해석된다.

玉은 흥덕왕 복식 금제 이전에는 女子의 釵에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흥덕왕 복식 금제에서 眞骨女 부터 六頭品 女, 四頭品 女의 釵에 刻鏤와 綴珠를 禁하였는데 이전에는 여러 가지 珠玉을 사용하였었던 것인데 흥덕왕 금식금제에서 그 사용을 禁하였을 것이다. 五頭品 女 項에서는 刻鏤와 綴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빠지고 釵에는 白銀 已下를 사용하라고 하였으므로 실제로는 眞骨女 부터 그 이하의 모든 女子의 釵에는 刻鏤와 綴珠를 禁하였으므로 玉의 사용이 禁止되었던 것이 확실하다.

3. 靴, 靴帶

三國史記 色服條에 新羅人의 신 이름은 두 종류가 보이는데 그것들은 靴와 履이다.

靴는 眞骨 大等 부터 平人 男子의 신발로 나타나며 靴에는 靴帶가 있었다.

靴는 鞞字가 本字다. 鞞는 「說文」에 鞞屬이라 있고 「玉篇」에 鞞也, 亦 履也라고 있다. 「釋名 釋衣服」에는 鞞, 跨也, 兩足 各以一跨鞞也. 趙武靈王 服之라 있다. 또한 太平御覽 卷 698에서는 「釋名」을 인용하여 鞞는 本 胡名이라고 說明하고 있다. 「廣韻」도 「釋名」을 인용하여 鞞 本 胡服, 趙武靈王 所服이라 하고 있다.

後唐 馬縞의 中華 古今注 卷 上에는

鞞者, 蓋古西胡服也, 昔 趙 武靈王 好胡服, 常服也, 其制短鞞黃皮 閑居之服, 至馬周改制長鞞以殺之 加之以氈及條, 得著人殿省敷奏, 取便乘騎也. 라고 있다.

說文에서는 鞞을 鞞屬이라고 해석하였고 또한 說文에는 鞞, 革履也, 胡人履連脛 謂之絡鞞 說文通訓定聲에는 鞞. 如今鞞也. 라고 있다.

玉篇에는 單履也, 楊子 方言에는 自關而東, 複履下禪者謂之鞞, 「注」今韋鞞也라고 있다.

위의 說明을 종합하여 보면 鞞는 脛 卽 신목이 있는 履로서 古 西胡에 그 연원이 있고 短鞞와 長鞞가 있었다.

眞骨 大等の 鞞에는 紫皮를 禁하였으며 六頭品 男子 부터 平人 男子 까지는 烏麀皴文紫皮의 使用을 禁하였다.

鞞帶의 材料로는 白玉, 烏犀, 鍮, 鐵, 銅 등이 普及된 것으로 보아서 가죽으로 된 鞞帶에 위의 재료들을 띠아 장식하였거나 또는 鞞帶의 양쪽을 여미는 데에도 鍮, 鐵, 銅 등이 使用되었을 것이라 해석된다.

眞骨 大等の 鞞帶에는 白玉을 禁하였고, 六頭品 男子는 烏犀, 鍮, 鐵, 銅을, 五頭品 男子는 鍮, 鐵, 銅만을, 그리고 四頭品 男子와 平人 男子는 鐵, 銅만을 使用하도록 定하였다.

新羅에서 鞞는 男子만 使用하였던 신발로 나타난다. 男女 모두 같이 신었던 신발은 履였다.

梁書 諸夷 新羅와 南史 東夷 新羅 條에는 襦曰尉解 袴曰柯半 鞞曰洗이라고 있어 新羅에서 鞞를 洗이라고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履

三國史記 色服條에 履는 男女 貴賤없이 신었던 신이었고, 貴賤과 性別의 差는 履의 材料에 있었다.

同書에서 男女履에 대한 規定을 보면 眞骨 大等の 履의 材料는 皮, 絲, 麻를 任意로 使用하도록 定하였고, 六頭品 男子와 五頭品 男子는 皮 麻만을, 四頭品 男子는 牛皮 麻 已下, 平人 男子는 麻 已下를 使用하도록 規定하였다.

婦女의 履의 材料에 대한 規定을 보면 眞骨 女의 履에는 罽, 織, 羅의 使用을 禁하였고, 六頭品 女의 履에는 罽, 織, 錦, 羅, 縹羅의 使用을 禁하였다. 五頭品 女는 但 皮 已下를, 四頭品 女는 皮

已下를 履의 材料로 使用하도록 했다. 平人 女의 履의 材料에 대하여는 言及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平人 女가 履를 신지 않았다는 意味는 아닐 것이다.

이것은 記錄의 누락일 것이다. 平人 女의 履의 材料는 平人 男子에서와 같이 麻 已下를 使用하도록 定하였을 것이다.

三國史記 色服에 보이는 眞骨 女 履 禁 罽, 織, 羅는 眞骨 女 履 禁 罽, 織, 錦 羅인데 錦字가 누락된 것으로 생각된다. 新羅 織物 等級에서 錦은 羅보다 한 等級 높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면 服飾禁制 以前에는 眞骨 女는 罽 織 錦 羅, 六頭品 女는 罽, 織, 錦 羅, 縹 羅 등의 材料를 使用한 履를 신었던다는 뜻이 된다. 이로써 新羅 貴婦女의 履는 대단히 사치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婦女의 履에는 男子 것보다도 더 多樣的 材料가 使用되었다는 것도 발견된다.

履는 발등이 鞋보다 더 많이 덮인 신이다. 履에 속하는 신은 高구려, 백제, 가야 등에 모두 있었던 것이다. 履의 재료에 따라 革履, 草履, 草履 등으로 불렀다.

古 新羅의 履는 蔚州 彥陽의 川前里 岩刻畫에 보이는 人物의 신, 또 慶州 斷石山 神仙寺址의 岩壁 畫의 供養 人物像 二人의 신을 들 수 있다.

新羅와 가야 出土의 많은 金銅履도 新羅時代의 履 모양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이다.

1) 鞞履의 材料

三國史記 色服에서 보면 鞞와 履의 재료로는 皮, 絲, 麻 등이 나타난다. 鞞의 재료에 사용되었던 皮는 履에 사용되었던 皮보다 그 색이 더 고급이었고, 皮革의 質도 더 고급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眞骨 大等과 六頭品~平人 男子의 鞞의 재료로 禁한 紫皮는 사슴가죽에 속한 것으로 해석된다.

眞骨 大等으로 부터 五頭品 男子, 五頭品 女와 四頭品 女의 履의 재료로 皮를 사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종류의 皮革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다. 皮革名이 명시된 것은 오직 四頭品 男子의 履에서 만인데 牛皮 麻 已下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興德王 服飾 禁制의 鞞 履 材料에서 보면 皮에도 고급 皮와 하급 皮의 등급이 있었던 것같

이 생각되지만 四頭品 男子를 제외하고는 그냥 皮라고만 있어서 그것이 鹿皮였는지 牛皮였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

三國史記 雜志 色服에서 皮는 주로 男女의 신발 재료로 나타난다.

男子는 眞骨 大等에서부터 平人에 이르기 까지 靴와 履를 신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女子의 신발에 靴에 대한 사항은 없고 履에 대한 사항만 있다.

皮와 관련이 있는 靴와 履의 材料에 대한 興德 王 服飾 禁制의 規定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靴

眞骨大等 靴 禁 紫皮
六頭品~平人 靴 禁 烏麩 黻文 紫皮

履

眞骨大等 履 任用 皮 絲 麻
六頭品 履 只用 皮 麻
五頭品 履 用 皮 麻
四頭品 履 用 牛皮 麻 已下.
平人 履 用 麻 已下
眞骨女 履 禁 罽 繡 羅
六頭品女 履 禁 罽 繡 錦 羅 總 羅.
五頭品女 履 但 用 皮 已下.
四頭品女 履 用 皮 已下.
平人女 履에 대하여는 아무 언급 없음.

위의 기록에 의거하면 服飾禁制 규정 이전까지는 王을 비롯하여 眞骨 大等 부터 平人에 이르기 까지 靴의 材料로 烏麩皮와 紫皮를 使用하였었는데 服飾 禁制에서 紫皮는 眞骨大等 부터 平人에 이르기 까지 靴의 材料로 使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면 紫皮로 만들어진 靴를 신을 수 있었던 사람은 王뿐이었던 것이다.

烏麩 黻文 皮靴는 六頭品 부터 平人이 使用하지 못하게 定하였으므로 그것을 신을 수 있었던 사람은 眞骨 大等 만이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王은 紫皮靴를 신었고 眞骨 大等은 烏麩 黻文 靴를 신었다는 뜻이 된다. 六頭品 以下는 烏皮靴를 신었을 것임이 확실하다 할 것이다.

한편 履의 재료로는 皮 絲 麻가 있다. 四頭品の 履에 牛皮 麻 已下. 平人의 履에 麻 已下를 使用하도록 되어 있는 기록으로 보면 麻 已下는 草種

類를 의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독 四頭品の 履 材料로 牛皮라고 皮의 이름이 明示된 것으로 보아서 五頭品, 六頭品の 履의 皮는 牛皮보다는 더 上品의 가죽을 쓸 수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마 鹿皮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가죽에 주름무늬가 없는 黑色이었을 것이다.

皮는 주로 履의 재료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眞骨 大等으로 부터 四頭品 男子의 履에 쓰도록 했다. 四頭品 男子의 履에만 牛皮라고 명시되어 있다.

女子의 履에는 五頭品 女와 四頭品 女만 皮 已下를 쓴다고 있고 平人 女의 履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平人 男子의 履에 麻 已下라고 있어서 平人 女의 履에도 麻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眞骨 女와 六頭品 女의 履에 禁한 材料를 보면 眞骨 女의 것은 罽, 繡, 錦 羅, 六頭品 女의 것은 罽, 繡, 錦 羅, 總 羅였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眞骨 女와 六頭品 女의 履에는 皮를 사용하지 않고 織物類를 禁한 것만 있으나 眞骨 大等の 履에 皮 絲 麻를 任用하도록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眞骨 女와 六頭品 女의 履에도 皮 絲를 사용하도록 한 것이었을 것이다.

紫皮와 麩皮에 대하여는 皮의 種類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2) 皮의 種類

(1) 紫皮

紫皮는 新羅人에게만 선호된 것이 아니었고, 古代 中國人도 紫皮를 烏皮나 綠皮보다 선호했었다.

「南史, 宋 文帝紀」에 鞞 舊以烏皮綠. 故欲代以紫皮, 上以紫皮, 貴不聽. 改其率紫如此.

이 기록은 服飾은 아니지만 紫皮 선호의 좋은 예이다.

紫皮는 鹿皮일 것으로 믿어진다.

(2) 麩皮

앞에서 六頭品 부터 平人의 靴에 烏麩 黻文을 쓰지 못하도록 한 것을 보았다.

麩는 麩과 같은 字이다.

「山海經」에 尸山 獸多麩, 「注」에 似鹿而小, 黑

色이라 있다.

「說文」에 麋, 大鹿也, 牛尾一角. 「一切經音義」에 麋, 似鹿而大, 一角也.

「文選, 左思, 吳都賦」 縹麋 「注」에 麋, 大麋也.

麋字에 대하여 찾아보면

「說文」에 麋, 鹿屬이라 있다.

「本草綱目, 麋」에 의거하면 鹿과 비슷하고 色은 靑黑色이고 크기는 小牛만 하다고 한다.

烏麋 黻文皮는 주름있는 검은 사슴 종류의 가죽이다. 黻文은 가죽의 가는 주름 紋을 의미한다.

(3) 緋縹皮

緋縹皮는 景文王 9年(869 A.D) 新羅에서 唐에 보낸 謝恩品 中の 하나다. 三國史記 景文王 9年條에 緋縹皮에 대한 기록은 繫鷹 緋縹皮 一百雙, 繫鷄子 緋縹皮 一百雙이라 있다.

新羅에 紫皮뿐만 아니라 緋縹皮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죽에다 緋色으로 물감을 들여서 무늬가 있도록 만든 가죽인 것을 알 수 있다.

(4) 虎皮

新羅에서 虎皮가 服飾에 使用되었다는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三國史記 雜誌 車鞵에 五頭品 女와 四頭品 女 至 百姓 女의 鞍鞵 鞍坐子에 다른 織物과 더불어 虎皮의 사용을 禁하였음이 발견되고 器用에도 六頭品, 五頭品 뿐만 아니라 四頭品에서 百姓에 이르기까지 虎皮를 使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 襪

興德王 服飾禁制의 男子 襪에 대한 기록은 대체적으로 간략한데 다음과 같다.

眞骨大等 襪任用綾巴下.

六頭品 襪只用純綿紬布.

五頭品 襪只用綿紬

四頭品 襪에 대한 기록없음.

平人 襪에 대한 기록없음.

男子의 襪에 대한 禁制에서 보면 眞骨 大等은 재료 사용범위가 下級 階級보다 조금 넓다. 四頭

品과 平人의 襪에 대한 禁制는 기록이 없는데 이 두 계급이 襪을 신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라 믿어진다.

五頭品의 襪에 綿紬만을 사용하도록 定하고 있으므로 四頭品과 平人도 이에 준한 것이었을 것이다.

綿紬는 布를 제외하고는 織物 貴重度의 순서가 제일 끝이다. 卽 貴重度의 순서로 布가 제일 下級이고 綿紬가 그 다음 下級 織物이기 때문에 綿紬 已下라고 한다면 綿紬와 布만 있다.

III. 女子 服飾 附屬品

1. 冠

三國史記 色服條에 依하면 新羅 婦人은 冠을 使用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眞骨 女와 六頭品 女 두 階級만 冠을 썼고 五頭品 女와 四頭品 女는 品階가 있었어도 無冠이라고 明示되어 있다. 그러므로 新羅의 婦人冠은 가장 높은 上流의 二階級에 속하는 女人만 使用할 特權이 부여된 高貴함의 상징이 되는 服飾 品目이었다.

眞骨女의 冠에는 瑟瑟 細을 禁하고 있는데 興德 服飾 禁制 以前에는 冠飾으로 瑟瑟 細을 使用했었다는 것을 意味한다.

六頭品 女의 冠에는 總羅, 紗, 絹을 使用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新羅 眞骨 女와 六頭品 女의 冠의 形態가 어떤 모양이었던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新羅 婦人服은 이미 文武王 4年(651 A.D)에 中朝衣裳을 따를 것을 命한 사실과 冠은 新羅 婦人에게 있어서 가장 上流 階級에 속하는 眞骨女와 六頭品女만 使用할 수 있는 特權과 階級의 상징물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冠은 唐制를 따랐을 것이라 추측된다.

瑟瑟 細이란 冠飾에 대한 禁制는 이 추측을 더 확고하게 이끈다.

아마 新羅 婦人의 冠은 唐 李重潤 箕石擲 線刻 宮裝婦女의 冠과 같은 種類였거나 이와 유사한 形態의 것이었을 것이다. 冠에 瑟瑟 細을 使用하였을 때도 위의 冠 裝飾과 같이 하였거나 비슷하게 하였을 것이라 추측된다.

1) 瑟瑟

우리나라의 문헌에서 瑟瑟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三國史記이다. 新羅 興德王 9年(834 A.D)의 服飾禁制에 眞骨女의 冠, 眞骨女와 六頭品女의 梳에 瑟瑟細를 禁한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三國史記 新羅本紀 景文王 9年(869 A.D)條에서도 新羅에서 唐에 보낸 謝恩品 가운데 瑟瑟 金針 筒三十具가 들어 있었던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위의 기록으로 보아서 瑟瑟은 新羅에서 興德王代에는 이미 잘 알려진 物品이었고, 그以後에도 계속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瑟瑟은 古代로 부터 中國人이 아주 愛好하고 귀중히 여겼던 物品이었다.

瑟瑟에 대한 기록은 中國 古史書에서 뿐만 아니라 그외의 다른 문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瑟瑟이 新羅人에게도 얼마나 귀한 물품이었던지는 興德王 服飾禁制로 잘 알 수 있다. 興德王 服飾禁制 以前에는 眞骨女의 冠과 眞骨女와 六頭品女의 梳를 장식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인데 興德王 服飾禁制에서는 眞骨女의 冠, 그리고 眞骨女와 六頭品女의 梳에 瑟瑟의 使用을 禁하였다. 興德王 服飾禁制 後에는 新羅 婦人 가운데서 冠과 梳에 瑟瑟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은 단지 王妃 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新羅에서 使用되었던 瑟瑟은 國內産이 아니고 外國 輸入品으로서 西域에서 輸入된 것이었음이 확실하다.

瑟瑟의 主産地는 西域이었던다.

新羅 時代의 瑟瑟의 명칭과 瑟瑟 細에 대한 논의는 本 研究者의 先行 研究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면 관계로 여기서는 더 길게 다루지 않기로 한다.¹⁾

2. 梳

梳는 이가 생긴 빗을 말하고 篦는 이가 촘촘한 빗을 말한다. 使用 上으로 나눈다면 梳는 理髮用이고 篦는 머리카락을 깨끗이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빗은 옛날부터 필수품이었으며 그 材料도 木, 骨, 金屬類, 玉, 象牙 등 여러 가지가 쓰

였다.

三國史記 色服條에 보면 新羅 婦人들은 값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梳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男子의 梳에 대한 기록은 三國史記에 나타나지 않으나 빗은 男子에게도 필수품이었으므로 服飾禁制에만 明示되지 않았다고 해석된다.

眞骨女의 梳에는 瑟瑟細 玳瑁를 禁하고 六頭品女의 梳에는 瑟瑟 細의 使用을 禁하였다.

五頭品女의 梳에는 素 玳瑁 已下를 使用하고 四頭品女의 梳에는 素牙 角 木을 使用하며 平人女의 梳에도 素牙 角 已下를 使用하도록 規定하였다.

위의 기록에서 볼 때 新羅 婦人들은 대단한 梳의 사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唐代의 婦人에게 크게 流行하였던 插梳 風俗이 新羅 婦人들에게 퍼진 것이라 解釋된다. 그러므로 梳는 理髮 用具이기도 했지만 理髮 用具의 기능 外에 一種의 重要한 婦人 首飾品으로서 新羅 婦人들이 좋아하게 되었던 流行品目이기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梳의 材料로 나타나는 瑟瑟, 玳瑁, 牙, 角 등은 全部 外國 輸入品이었던 것을 보면 新羅 婦人들의 梳에 대한 사치를 짐작할 수 있다.

머리에다 빗을 꽂아 장식하는 流行은 唐代 婦人들 사이에 크게 流行되었을 뿐만 아니고 日本 女人들에게도 流行되었던 것이다.

1) 興德王 服飾禁制의 新羅婦人 梳의 玳瑁使用 記錄에 대한 의문

三國史記 色服에서 먼저 梳에 관한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眞骨女 梳禁瑟瑟細玳瑁
六頭品女 梳禁瑟瑟細
五頭品女 梳用素玳瑁已下

위의 梳에 대한 기록에서 보면 六頭品女와 四頭品女의 梳에서는 玳瑁에 관한 아무 言及이 없다. 四頭品女의 梳에 玳瑁의 言及이 없다는 것은 四頭品女의 梳에 玳瑁는 服飾禁制 以前부터 사용할 수 없었고 五頭品女 以上の 梳에 玳瑁가 使用되었을 것이다.

1) 金鎮玖, "瑟瑟의 研究", 服飾文化研究, (제2권 제2호, 1994), p.247-263.

그런데 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眞骨女에서부터 五頭品女의 梳의 玳瑁에 대한 사용 禁止나 使用項目은 아래 위 어느 쪽으로도 格이 맞지 않는다.

眞骨女의 梳에 玳瑁를 禁하였는데 六頭品女의 梳에는 玳瑁를 禁한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더 이상한 것은 五頭品女의 梳에는 素玳瑁已下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그렇다면 三國史記 色服의 梳에 보이는 바와 같은 眞骨女 梳 禁 瑟瑟 鈿 玳瑁란 기록은 眞骨女 梳 禁 瑟瑟 鈿 用 玳瑁이고 六頭品女 梳 禁 瑟瑟 鈿이란 기록도 六頭品女 梳 禁 瑟瑟 鈿 用 玳瑁의 誤로 眞骨女의 梳 項에서는 玳瑁앞에 用字가 탈락되고 六頭品女의 梳 項에서는 瑟瑟 鈿 뒤에 用 玳瑁가 탈락된 것으로 해석된다. 眞骨女와 六頭品女가 梳에 使用하였던 玳瑁는 아마도 五頭品女가 使用하도록 定한 素 玳瑁와 區別되는 黃黑色, 黑褐色, 黃色, 黃褐色과 같은 有色 玳瑁를 任意로 쓸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다.

梳의 材料

1) 玳瑁

玳瑁는 毒圓, 瑤瑁, 蟪瑁라고도 쓴다. 玳瑁는 龜類로서 南海에 사는데 껍질은 古代로 부터 裝飾品의 재료로 쓰여왔다. 諸蕃志 下에는 渤泥(Borneo), 三嶼(比律賓 群島의 最西端), 浦哩嚕(比律賓 群島의 Polio島), 閩姿(Java)등지에서 잡히는 龜類 鱗甲이라 하였다.

玳瑁는 新羅에서 眞骨女에서 부터 五頭品女의 梳의 재료로 사용되었을 뿐 아니라 三國史記 雜志 車騎에 眞骨의 車材에 不得帖 玳瑁라 하였고 屋舍에서는 眞骨과 六頭品은 床不得飾 玳瑁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玳瑁는 新羅에서 女人의 梳에 뿐만 아니라 車材와 床의 장식에도 사용되었던 外來品이었다.

玳瑁의 產地

여러 문헌 기록이 引用된 太平御覽의 玳瑁條에서 그 產地를 간추려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史記曰… 又曰 江南出 丹沙 犀象 瑤瑁 珠玢
後漢書曰 賈 琮傳云 交趾 土多琮產明 玢 翠羽

象犀瑤瑁 異香美木之屬莫不自出

又曰天竺國出象犀瑤瑁也

吳錄曰 嶺南 盧賓縣 漲海中 玳瑁似龜而大

吳錄曰 魏使以馬求易 珠玢 翡翠 玳瑁 南方異物志曰 玳瑁如龜 生南海 廣志曰 玳瑁 形似龜 出南海 巨延州

左思 吳都曰 蠭 壁玳瑁金質黑章

唐書曰 憲宗朝 訶陵國 獻 僧 • 女二人 瑤瑁 • 生犀物等

江南은 長江 以南이다.

交趾는 現 越南땅이다. 交趾에 대한 설명은 翡翠條에서 다루었으므로 翡翠의 產地를 참조하기 바란다. 天竺國은 印度이다.

嶺南 盧賓縣 漲海는 南海 卽 廣州(今番禺)로 생각되는 곳이다.

異物志와 廣志 등에 의거하면 南海는 玳瑁의 產地로 有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訶陵國은 唐代의 東印度를 가리킨다.

唐書, 地理志에 廣州 東南海 有訶陵國이라 있다.

2) 象牙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에 象牙는 四頭品女의 梳에 牙, 角, 木을 쓰도록 規定한 것이 보일 뿐 다른 品階의 女子 梳에서는 牙, 角에 대한 아무 言及이 없다.

四頭品女의 梳에 牙, 角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것을 미루어 보면 四頭品女 以上에게는 牙, 角梳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新羅에서 象牙는 男子에게도 使用되었다. 三國史記 眞德王 條에 의거하면 眞德王 3年(649 A. D.)에 中國衣冠 制度를 쓰도록 하고 그 다음해에 眞骨 在位者는 牙笏을 잡도록 하였다.

象牙나 犀角은 土產品이 아니고 外來品이었음은 自明한데 象牙의 產地는 古代로 부터 東南亞 中國 南部 西域 등에서 產出되었던 것으로 中國 古文獻 기록에 전하여지고 있다. 그것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象牙의 產地

1. 梁山

山名, 地名 등으로 梁山의 뜻은 열 개도 넘다. 이러한 여러 뜻 가운데서 爾雅釋地에 보이는 梁山은 一名 梁州山이라고 하는 곳으로서 陝西省 南鄭縣 東南에 있는 곳이다. 「爾雅釋地」에 南方之 美者, 有 梁山之犀象焉. 이라 있다.

2. 南越

3. 身毒 : 現 印度

4. 扶南

5. 林邑

6. 文單國

7. 訶伽國

8. 臨邑

9. 九眞郡 龐縣

10. 吳

11. 蒼梧

12. 嶺南

13. 南海

14. 伊

15. 眞 臘國

16. 藍國

17. 乾陀國 : 古代 北部 印度의 國名 卽 乾陀羅

18. 潮循州(廣之屬郡)

19. 佛林國

20. 大食國

21. 雲南

22. 占城國

23. 驪州 日南郡 : 象齒를 唐에 바쳤다.

3) 犀 角

三國史記의 色服條에는 四頭品 女의 梳에 牙, 角, 木을 쓰도록 규정한 조항이 보이는 것 외에 이에 대한 기록을 다른 기록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牙梳나 角梳는 四頭品 女 以上에게 허용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象牙나 犀角은 外來品으로서 귀한 물품이었기 때문에 古代 中國人도 그것들을 매우 좋아 했던 물품이었고, 이것들은 古代로 부터 梳뿐만 아니라 다른 장식품으로도 이용되어온 재료 중의 하나이다.

烏犀는 男子 腰帶의 材料로도 사용되었던 것을

興德王 服飾 禁制의 腰帶 條에서 볼 수 있다. 六頭品 帶 只用 烏犀 鏡, 鐵, 銅이라 있는 기록으로 보아서 六頭品 以上 卽 眞骨 大等과 六頭品 男子의 腰帶에만 烏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犀角의 產地

1. 日南

「東觀漢記」에 章帝 元和 元年 日南이 白雉와 白犀를 바쳤다고 있다. 日南은 漢時代에 略越 南部 땅인 오늘날의 越南 東北部에 위치했던 곳이다. 唐書 地理志에는 驪州 日南部에서 犀角을 바쳤다고 있다.

2. 義渠

3. 南郡

4. 琴鼓之山

5. 林邑國

6. 高州 平之縣

7. 交州(九德縣)

8. 占城國

「南齊書, 文惠太子傳」에는 善이 珍玩之物을 만들고 孔雀毛로 裘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다.

3. 釵

釵에 대하여 玉篇에서는 婦人 岐弁라고 解釋하였다. 卽 釵는 두 가닥의 婦人用 비녀이다. 釵는 中國의 湖南 衡陽의 東漢 墓 出土品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이 그 역사는 길다. 唐代에 婦女들 間에 머리에 釵를 꽂아 裝飾하는 것이 盛行하였는데 그 唐風이 新羅 婦女들의 釵의 流行과 사치에 영향을 미쳤던 것은 三國史記 色服에서 釵의 材料와 그 裝飾에 대한 것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

同書에서 보던 眞骨 女의 釵에 刻鏤及 綴珠를 禁하였고 六頭品 女의 釵에는 純金以銀刻鏤及 綴珠를 禁하였다. 五頭品 女는 釵에 白銀 已下를 쓰고 四頭品 女는 釵에 刻鏤綴珠及 純金의 使用을 禁하였으며 平人 女는 釵에 鑲石 已下를 使用하도록 規定하였다.

위의 기록에 의거하면 新羅 婦人은 興德王의 服飾 禁令 반포 以前에는 金, 銀, 珠玉 등을 釵의

材料로 使用하였을 뿐만 아니라 釵에다 刻鏤와 綴珠로 裝飾했었다. 釵에 綴珠를 하였었다는 것은 唐代 婦人들의 步搖釵를 연상하게도 하는데 新羅의 貴婦人들은 唐의 貴婦人들과 같은 步搖釵도 使用하였던 것으로 解釋된다.

五頭品 女의 釵에는 眞骨 女, 六頭品 女, 四頭品 女의 釵에 刻鏤 綴珠를 禁한 사항이 없는데 이것들은 眞骨 女와 六頭品 女에게도 禁한 것이므로 五頭品 女의 釵에 명기되지 않았어도 당연히 五頭品 女의 釵에도 그것들을 禁한 것이 된다. 五頭品 女의 釵에 白銀 이하를 쓰도록 命하였는데 四頭品 女의 釵에 純金の 使用을 禁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四頭品 女의 釵의 재료로 무엇을 쓰도록 하였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五頭品 女에게 쓰도록 한 “白銀 已下”의 재료일 것이라 해석된다.

釵의 材料

興德王 服飾 禁制에 나타나는 釵에 대한 기록으로 新羅婦人의 釵에 어떤 재료들을 사용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眞骨女의 釵에 刻鏤及 綴珠를 禁하였고, 六頭品 女에 釵에는 純金以銀刻鏤及 綴珠를 禁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眞骨女에게만 純金으로 만든 釵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六頭品 女는 銀을 사용하고 五頭品 女는 白銀 이하를 사용하고 平人 女는 釵에 鍍石이하를 쓰도록 한 것으로 보아서 釵의 재료로는 純金, 銀, 白銀, 鍍石 등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珠玉은 釵를 장식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平人 女의 釵에는 鍍石 已下를 쓰도록 하였다. 釵의 재료의 중요성 순서로 보면 鍍石은 白銀이하의 금속이다.

鍍石과 鍍石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1) 鍍 鍍石

흥덕왕 복식 금제에서 보면 六頭品 男子의 腰帶에 烏犀, 鍍, 鐵, 銅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鍍는 또한 男子의 靴帶에도 사용되었다. 六頭品과 五頭品의 靴帶 재료로 鍍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六頭品은 烏犀, 鍍, 鐵, 銅을 사용하도록 하였

고, 五頭品은 鍍, 鐵, 銅만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鍍는 六頭品 男子의 소(牛)의 環에 쓰도록 하였다.

鍍는 銅과 爐甘石을 합하여 제련하여 만든 금속이다. 鍍쇠라고 하는 것이다. 현금에 소위 黃銅이란 것이다.

鍍石은 自然銅의 精한 것을 일컫는다. 鍍石의 質은 銅과 같지만 色은 黃金과 같은 것이다. 自然銅의 精한 것을 眞鍍石이라 하고 爐甘石을 精鍊하여 만든 것을 假鍍石이라고 한다. 眞鍍石은 波斯에서 나는데 黃金과 같고 태웠을 때 赤色으로 되지만 黑色으로 되지 않는 것이다.

三國史記 器用에서 보면 鍍石은 四頭品에서 百姓에 이르기 까지 그 使用을 禁하였다.

車騎에서 보면 眞骨의 수레를 끄는 소의 環과 步搖에 金, 銀, 鍍石의 使用을 禁하였다. 六頭品은 環에 鍍, 銅, 鐵을 하도록 하였다.

이 기록으로 볼 때 鍍石은 鍍보다 귀한 금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眞骨 부터 그 이하의 衍鐙에도 鍍石의 使用이 禁지되었다.

三國史記 屋舍에서 보면 鍍石은 眞骨에서 부터 平人에 이르기 까지 신라의 모든 사람의 집 단장에 그 使用을 禁하였다.

新羅에서 女子의 釵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던 鍍石이 波斯産이었음을 알 수 있다.

鍍石의 產地가 波斯였었다는 기록과 鍍石의 使用을 金銀의 使用과 함께 禁한 것은 新羅에서 鍍石이란 금속이 대단히 귀한 금속에 속하였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다. 眞骨에게 까지도 鍍石의 使用을 禁하였었다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4. 袷

袷는 婦人領巾이다. 「方言, 四」에 屨袷謂之被巾. 「注」婦人領巾也. 라고 있으며 「廣韻」에도 袷, 領巾也. 라고 있다. 領巾은 幘巾, 被巾, 幘帛, 幘라고도 하였다.

唐 婦人들에게 流行했던 唐의 幘帛이 新羅에 流入되어 新羅 上流階級 婦女의 장식품으로 使用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 色服條 服飾禁制에는 平人女의 袷에 대한言及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新羅의 平人女나 下流階級 婦人은 袷를

使用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 禁制의 裱에 관한 記錄은 다음과 같이 보인다.

眞骨女 裱 禁制及繡用 金銀泥 孔雀尾 翡翠毛者.

六頭品女 裱 禁制 繡 錦 羅 金銀泥.

五頭品女 裱用 綾 絹 已下.

四頭品女 裱 短衣 只用 絹 已下.

위의 禁制에 의하면 眞骨女의 裱의 材料에 罽와 繡의 使用을 禁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反面에 金銀泥, 孔雀尾, 翡翠毛의 使用을 許用하였다. 金銀泥도 대단히 貴한 장식이고 孔雀尾와 翡翠毛도 東南亞 産의 外國 수입품으로 貴한 物品인데 이러한 것을 裱의 材料로 使用토록 許用하고 罽와 繡의 使用을 禁하였다는 것은 罽와 繡는 新羅人들에게 가장 貴하고 값비싼 服飾材料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의 服飾禁制 制定 前에는 新羅에서 眞骨女는 裱의 재료로 罽繡를 사용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裱는 唐代 婦人들에게 대단히 流行하였던 하나의 唐 服飾 品目으로서 이것이 新羅에 流入되어서는 위로는 最上流 階級인 眞骨女를 비롯하여 六頭品女, 五頭品女, 四頭品女에게만 使用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裱는 新羅 上流階級 婦人의 社會的 階級과 身分 표시와 下流 階級과의 階級 區別의 服飾 品目이었던 것도 아울러 발견할 수 있다.

眞骨女의 裱의 재료에 罽와 繡를 禁하였고 金銀泥, 孔雀尾, 翡翠毛者를 使用하도록 했다.

眞骨女의 裱의 재료로 織物은 罽와 繡를 禁하였으므로 眞骨女는 裱의 재료로 錦, 羅, 綾, 絹 등은 任意로 使用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卽 罽, 繡를 제외한 錦 이하의 織物을 쓸 수 있었다.

六頭品女는 裱에 罽, 繡, 錦 羅와 金銀泥를 使用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내 織物 外의 織物은 使用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裱의 재료로는 錦 羅, 綾 絹 등이 使用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織物들에 대해서는 본 연구자의 연구가 따로 있으므로 여기서는 金銀絲, 金銀泥, 孔雀尾, 翡翠毛 등에 대하여 조금더 다루고자 한다.

1) 金銀絲와 金銀泥

金銀絲는 金銀泥보다 더 비싸고 귀한 것이다. 三國史記 色服에 의거하면 金銀絲와 金銀泥가 옷감을 장식하는 것에 많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金銀泥의 使用은 金銀絲의 使用보다 더 광범위했던 것을 興德王 服飾 禁制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 禁制에서 볼 때 服飾 禁制 制定 以前까지는 五頭品女 以上の 新羅女人은 袴, 褙, 襜, 短衣, 表囊, 內裳에도 金銀泥로 무늬를 박은 옷감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興德王 服飾 禁制에서 金銀絲, 金泥, 銀泥에 대한 禁制를 찾아 보면 다음과 같다.

(1) 金銀絲

金銀絲는 眞骨女의 裱, 六頭品女와 五頭品女의 帶에 그것의 使用을 禁하고 있다. 그러므로 眞骨女는 興德王 복식 禁制 이후에도 帶에 金銀絲를 使用할 수 있었다는 뜻이 된다.

(2) 金 泥

六頭品女와 五頭品女의 袴에 金泥의 使用을 禁하였다.

(3) 金銀泥

六頭品女의 裱, 褙, 襜, 短衣, 表囊에 金銀泥의 使用을 禁하였다.

또한 五頭品女의 褙, 襜, 短衣, 表囊, 內裳에 金銀泥를 禁하였다. 五頭品女의 裱에는 綾 絹 已下를 使用하도록 하였으므로 裱에 六頭品女에서와 같이 金銀泥의 使用을 禁하는 항목이 없어도 金銀泥의 使用은 당연히 禁止된 것이다.

新羅 貴族 婦人의 裱와 帶의 재료로 사용되었던 특별한 재료이기도 하고 또한 外國産品이었던 孔雀尾와 翡翠毛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고 아울러 이것들의 產地를 찾아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2) 孔雀尾

三國史記 雜志 色服에는 孔雀尾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眞骨 女에서 부터 五頭品 女까지의 服飾 品目에서 그것의 使用을 禁止하는 조항이 다음과 같이 보인다.

眞骨 女 袿 禁 罽 及 繡 用 金 銀 絲 孔 雀 尾 翡 翠 毛 者.

六頭品 女 帶 禁 以 金 銀 絲 孔 雀 尾 翡 翠 毛 爲 組

五頭品 女 帶 禁 以 金 銀 絲 孔 雀 尾 翡 翠 毛 爲 組

眞骨 女의 袿에는 罽 및 繡, 金銀絲, 孔雀尾, 翡翠毛者의 使用을 禁하였고, 六頭品 女의 袿에는 眞骨 女의 袿에 보이는 金銀絲, 孔雀尾, 翡翠毛에 대한 禁止사항이 없다.

眞骨 女의 袿에 禁止된 사항이 六頭品 女의 袿에 明示되지 않았다고 하여 六頭品 女의 袿에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 아니다. 당연히 六頭品 女의 袿에도 그것들의 사용이 禁止되었었다는 의미이다.

六頭品 女와 五頭品 女의 帶에 金銀絲, 孔雀尾, 翡翠毛를 사용하여 組를 만드는 것을 禁하였다.

眞骨 女의 帶에는 이것들에 대한 아무 조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金銀絲나 孔雀尾, 翡翠毛를 袿에 사용하는 것은 禁하였지만 帶에 사용하는 것은 興德王 服飾禁制의 制定 後에도 허용되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孔雀는 熱帶 森林에 群棲하는 새로서 本來 印度가 原產地이다. 孔雀는 印度, 東南亞, 아프리카 一帶에 棲息하는 새인데 孔雀尾가 外來品이란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이 貴한 孔雀尾가 新羅 貴婦人의 袿나 帶의 재료로 使用되었다는 것 하나만 보아도 新羅 貴婦人들의 服飾 奢侈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만하다.

孔雀의 出產地를 문헌기록에서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周書曰 方獻孔雀 方亦戎 別名

漢書曰 罽賓國 出孔雀

「後漢書, 賈琮傳」에는 交趾土多珍產 明璣 翠羽 象 玳瑁 香美木之屬 莫不自出

「後漢書, 西南夷傳」에 哀牢出孔雀翡翠.

「九州記」哀牢 出銅鐵 鉛錫金銀…… 孔雀 翡翠 象 猩猩 豹獸

又曰 尉佗獻文帝 孔雀 二雙

續漢書曰 西南夷 魚池出孔雀

又曰 西域 條支國出孔雀

張璠 漢記曰 條支國 臨西海出師子孔雀

江表傳曰 魏文帝 遣事於吳求孔雀 羣臣以爲非禮欲不與孫權勅付使

魏文帝 與 朝臣詔曰 前于眞王 所上孔雀尾 萬枚 文采五色以爲金銀車蓋遙望耀人眼

吳錄 地理志 曰 交趾西子縣多孔雀在山草中郡內及朱崖皆有之

晉書 公卿贊曰 世祖時 西域獻孔雀 後魏書 曰 龜茲國地多孔雀羣飛山谷人取養及食乳如 雞 鶩

山海經 曰 南方多孔雀 郭璞曰 孔雀也

南越志 曰 義寧縣 杜山多孔雀

華陽國志 曰 雲南郡 出孔雀常二月來翔月餘而去

嶺南 異物志 曰 交趾郡 人多養孔雀

위의 孔雀의 出產地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方(即 戎)
2. 罽賓國(西戎)
3. 交趾 西子縣
4. 西南夷
5. 西域 條支國(西戎)
6. 吳
7. 哀牢(南蠻)
8. 龜茲國(西戎)
9. 南方
10. 義寧縣 杜山
11. 雲南郡

南越志의 義寧縣 杜山은 어느 곳인지 現在로서는 確證하기 어렵다. 南越志의 저자인 沈懷遠은 東晉人인데 그가 南越은 揚州之 末土라고 하였다. 卽 南越은 現 廣東省 一帶가 된다.

義寧縣은 南朝 宋代에는 廣東省에 있었고 五代 晉代에는 廣西省 桂林縣 西北에 있었다. 杜山이 어디에 위치한 곳인지 찾으면 이 의문은 풀릴 것

이다. 現在로서는 廣東省에 位置하였던 義寧縣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3) 翡翠毛

翡翠毛는 古代로 부터 裝飾品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中國의 문헌 기록에 의하면 翡翠毛는 中國 古代로 부터 많이 애호되어온 물품이었다. 冠(鷩冠), 冠飾 天子의 車蓋, 椅帳, 扇, 旌 등에 사용되었다.

翡翠毛는 孔雀尾와 함께 新羅에서 婦人의 服飾用品의 장식에 使用되었다.

翠毛장식은 中國에서는 特別히 清代에 대단히 선호되었던 장식 재료로서 女子의 장식품에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머리 장식품, 관 장식, 簪, 귀걸이, 香包, 손톱 덮개, 단추 등을 장식하는데 翡翠毛는 다른 장식 재료와 섞어서 사용되었다.

앞의 孔雀尾 項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翡翠毛는 金銀絲, 孔雀尾와 함께 眞骨 女의 襖, 六頭品 女와 五頭品 女의 帶에 사용하는 것을 禁하였다.

翡翠(*Halcyon coromanda*)는 鳥類에 屬하는 鳴禽類로서 赤鳩이라고도 한다. 「埤雅」에 翠鳥, 或謂之 翡翠, 雄赤曰翡, 雌青曰翠. 라 있다.

「博物志」에서는 翡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說明하였다. 翡身通黑, 惟胸前, 背上, 翼後有赤毛, 翠身通青黃, 惟六翻 上毛長寸餘青, 其飛則羽鳴翠 翡翠 翡然, 因以爲名.

「格物論」에는 翡翠에 대한 다음과 같은 說明이 있다. 翡翠, 形小不握握, 一種二色, 翡赤羽, 翠青羽, 鷩羽亦翠, 鷩鷩亦翠, 髮紫纓, 大如兔, 皆珍禽也, 翠翟, 一名魚狗, 爾雅又名 翡翠.

翡翠毛는 그 아름다운 색과 희귀성 때문에 古代로 부터 服飾에 뿐만 아니라 다른 장식에도 많이 사용되고 애호되어 왔다.

翡翠의 產地

翡翠의 產地로는 中國 西南部와 東南亞, 西南亞 一帶였다.

「說文」에 翡, 亦羽雀也, 出鬱林, 翠, 青羽雀也,

出鬱林. 이라 있다.

爾雅曰 翠鷩也 郭璞注曰似鷩紺色 出鬱林.

倉頡解詁曰 鷩 翠別名也

周書曰 成王時 倉梧 獻翡翠

漢書曰 尉佗獻文帝 翠鳥千

說文曰 翡翠 青赤雀也

異物志曰 翠鳥似鷩 翡赤而翠青 其羽可以爲飾

南州異物志曰 翠唯六翻²⁾ 毛長餘 青茸 翡大於

鷩 小於鳥

위의 說文과 爾雅의 說明에서 본 것 같이 翡翠는 鬱林에서 產出되었다.

위의 周書의 引用에 의거하면 蒼梧가 翡翠를 바쳤다고 있다. 蒼梧는 郡名, 縣名인데 廣西省에 있다. 漢初에 南越에 속하였던 곳이다.

앞에서의 漢書 引用에서 보면 尉佗가 文帝에게 翡翠를 바쳤다고 있는 것이다.

尉佗는 秦漢時, 南粵王 趙佗이므로 南越이 翡翠의 產地였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다.

廣志曰 翡色赤紺皆出交趾興古縣

交州紀曰 翡翠出九眞 頭黑腋下赤青綠色似鷩 鳩

秦書曰 符堅時 西域獻翠鳥四頭 雄雌各二 籠盛之月餘並死

翡翠는 交趾와 九眞에서 產出되었다. 交趾와 九眞은 漢代의 駱越에 속하였던 곳인데 現代의 越南 땅이다.

交趾와 九眞은 멀지 않은데 九眞은 交趾 南쪽에 있다. 交趾와 九眞은 漢代의 七郡에 속해 있던 郡名이기도 하다. 交趾는 交趾라고도 쓰고 南方 國名이기도 하다.

九眞은 本來 南越에 위치해 있었다. 漢武帝가 南越을 滅하고 九眞郡을 析置하였다. 오늘날의 越南 境內에 있다.

番禺도 西漢 時代에 珠貝翠羽犀 香料의 產地였다.³⁾

番禺는 番禺라고도 쓰이는데 番禺는 縣名으로서 南海郡에 있었다. 南海郡은 卽 今 廣東省의 廣州市이다.

2) 翻: 이런 글자는 없다. 다른 기록으로 보아 翻(즉지 혁) 字로 생각된다.

3) 中國歷史地圖下, 台北, 中國文化大學 出版部, 1980, p.19.

西域에서도 翡翠가 產出되었다.

5. 帶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에 帶는 女子用으로 나타난다. 男子의 帶는 腰帶로 나타난다. 六頭品과 平人 男子 服飾의 帶는 腰帶가 아니고 그냥 帶라고만 나타나는데 이는 帶앞의 腰字가 누락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두 계급의 帶의 材料도 다른 계급 男子 腰帶의 材料와 같이 織物類가 아니기 때문이다.

眞骨 女에게는 帶에 대한 禁目이 없는데 眞骨 女는 任意로 帶의 材料를 使用할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記錄의 누락인지는 알 수 없다.

三國史記 色服條에 의거하면 六頭品 女와 五頭品 女의 帶의 材料로 禁한 것은 똑같이 金銀絲, 孔雀尾, 翡翠毛를 넣어서 짜는 것이다. 이 기록으로 볼 때 이전에는 위의 귀한 재료들을 넣어 잔 帶를 五頭品 女 以上은 使用했었다는 뜻이 된다. 만약 眞骨 女의 帶의 재료는 전과 같이 任意로 使用토록 했다면 金銀絲, 孔雀尾, 翡翠毛를 넣어 잔 組帶였을 것이다. 만약 眞骨 女가 원한다면 四頭品 女에게 禁한 組組帶나 羅帶와 같은 것도 사용하였을 것이다.

婦人 帶의 材料는 위에서 이마 본 바와 같이 金銀絲, 孔雀尾, 翡翠毛를 넣어 組하거나 織 또는 織物을 使用하였던 것에 그 특징이 있고 男子의 腰帶의 材料와 區別된다.

신라 女子의 帶에 대한 禁制를 보면 다음과 같다.

眞骨 女 帶에 대한 기록 없음
 六頭品 女 帶禁以金銀絲 孔雀尾 翡翠毛 爲組
 五頭品 女 帶禁以金銀絲 孔雀尾 翡翠毛 爲組
 四頭品 女 帶禁組及 野草羅 乘天羅 越羅
 平人 女 帶只用 綾絹已下

이상의 新羅 女子의 帶에 대한 禁制에서 보면 대체로 織物類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男子의 腰帶 材料로 金屬類가 언급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男子의 腰帶가 딱딱한 것이고 女子의 帶는 부드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 履

新羅 興德王 服飾禁制에 依하면 鞞는 男子만 신었고, 履는 男女 共用으로 귀천없이 신었던 신발이었다.

興德王 服飾 禁制에서 新羅 女子 履에 대한 規定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眞骨 女 履 禁 罽 繡 羅
 六頭品 女 履 禁 罽 繡 錦 羅 總 羅
 五頭品 女 履 但 用 皮 已 下
 四頭品 女 履 用 皮 已 下

위의 기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女子 履에 대한 禁制에는 平人 女의 履에 대한 기록이 없다. 男子 平人의 履에 대한 禁制에 麻 已 下를 쓰도록 한 것을 미루어 볼 때 平人 女의 履에도 平人 男子의 履에 대한 規定에서와 같이 麻 已 下를 쓰도록 規定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履에 대한 禁制에서 볼 때 眞骨 女와 六頭品 女에게 禁止된 履의 재료는 全部 織物類이다. 이 자료와 男子 眞骨 大等 履 任用 皮 絲 麻 亂 規定으로 미루어 볼 때 眞骨 女와 六頭品 女의 履에도 絲와 皮 등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것이라 믿어진다.

眞骨 女의 履 禁 罽 繡 羅라고 있는 기록은 履 禁 罽 繡 錦 羅로서 錦字가 누락된 것으로 믿어진다. 이와 같이 罽 繡 錦 羅의 순서에서 錦字가 빠지고 罽 繡 羅라고만 있는 기록은 眞骨 女의 內衣 半臂 袴 履 並 禁 罽 繡 羅라고 있는 기록에서 발견된다.

新羅 織物 貴重度의 순서로 보면 罽 繡 羅는 罽 繡 錦 羅여야 옳다.

7. 襪

興德王 服飾 禁制에서 女子 襪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眞骨 女 內衣, 半臂, 袴, 襪, 履, 並 禁 罽 繡 羅
 六頭品 女 襪 禁 罽 繡 錦 羅 總 羅 野草羅
 五頭品 女 襪 禁 罽 繡 錦 羅 總 羅 野草羅
 四頭品 女 襪 只用 小文綾 已下,
 平人 女 襪 用 絁 綿 紬 已下.

위의 기록에서 보면 襪은 眞骨 女에서부터 平人 女에 이르기 까지 누구나 신었던 필수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襪의 재료는 계급과 品階에 따라 차이가 있다. 眞骨 女에게 禁한 襪의 재료는 단지 罽 罽 羅 세 가지 직물이다. 新羅 織物 貴重度의 순서로 볼 때 罽 罽 羅여야 옳다. 卽 羅앞에 罽이 놓여야 織物 貴重度의 순서가 옳다.

罽 罽 羅는 罽 罽 羅여야 하는데 罽字가 빠진 기록이나 전사시의 잘못으로 보인다.

六頭品 女와 五頭品 女에게 禁한 襪의 재료는 同一하고 眞骨女에게 禁한 것보다 織物의 수가 더 많다.

襪의 재료에서도 계급차를 두었다는 것이 興德王 服飾禁制에서 드러난다.

8. 其 他

이외에도 褌 袴 襪 袴 등이 있지만 이것들에 대한 것은 본 연구자의 논문이 따로 있으므로 이 논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IV. 結 論

이상에서와 같이 三國史記 色服에 나타나는 新羅 服飾 附屬品을 分析한 結果를 종합하여 結論을 도출하여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新羅 男子의 冠帽名은 幘頭만 나타났다. 幘頭는 眞骨 大等 부터 平人에 이르기까지 썼던 관모인데 身分 階級의 차이를 幘頭 材料의 차이에 두었다. 幘頭는 唐에서 유래된 冠帽名이다.

腰帶는 眞骨 大等 부터 平人男子의 복식 부속 품명으로 나타났다. 新羅 男子의 腰帶는 金屬 裝飾이 있는 딱딱한 종류의 帶였다.

新羅 男子는 身分 階級에 따라 腰帶 材料가 달랐다.

靴는 新羅에서 男子만 신었다. 靴는 眞骨 大等 부터 平人 男子가 신었는데 靴에는 靴帶가 달려 있었다. 靴와 靴帶의 材料로써 階級 차이를 두었다.

履는 男女 貴賤없이 모두 신었다. 貴賤과 性別의 차이는 履의 材料에 두었다.

襪은 男女 모두 신었다. 男女 階級別로도 襪의

材料에 차이를 두었을 뿐만 아니라 性別間에도 材料에 차이를 두었다.

新羅에서 婦人도 冠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眞骨 女와 六頭品 女 두 계급만 冠을 썼고 五頭品 女와 四頭品 女는 無冠이었다. 新羅의 婦人冠은 높은 階級과 高貴한 身分의 상징 표시가 되는 복식 품목이었다.

新羅 婦人 首飾品으로는 梳와 釵가 있었다. 新羅 婦人이 머리에 梳와 釵로 장식한 것은 唐나라 婦人들에게 流行하였던 唐風의 영향이라 해석된다. 新羅 婦人의 梳와 釵는 매우 사치스러웠던 것으로서 瑟瑟 玳瑁 牙角等 外國產 材料이므로 梳와 釵의 재료도 계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褌는 眞骨 女 부터 四頭品 女 以上の 女子가 사용하였던 것으로서 平人 女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各 階級에 따라서 織物의 종류와 織物 장식 소재 등의 사용에 차등을 두어 階級표시를 하였다. 褌는 제일 길에 걸치는 婦人 領巾이란 중요성 때문에 金銀泥, 孔雀尾, 翡翠毛와 같은 것을 眞骨女의 褌에는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

袴도 唐나라 婦人들에게 流行하였던 것으로서 唐으로부터 新羅에 流入된 것이었다.

女子의 帶는 대체로 織物類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階級에 따라 사용직물이 달랐다.

女子 履는 男子 履의 재료와 같이 皮 麻가 공통적으로 사용되었고 眞骨 女와 六頭品 女는 織物類의 履도 사용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女子 襪은 男子 襪의 材料에 比하여 대체로 전체적으로 조금 더 高級 織物의 사용이 허락되었다.

男子는 眞骨 大等の 襪에 綾 已下를 任用하도록 하였는데 女子는 四頭品 女의 襪에 小文綾 已下만을 쓰도록 했다.

男子는 六頭品에게 絁, 綿紬, 布만을 쓰도록 했는데 女子는 平人 女에게 絁, 綿紬 已下를 쓰도록 했다.

三國史記에 나타난 新羅 服飾 附屬品은 男子의 것은 幘頭, 腰帶, 靴, 履, 襪이었다. 女子 服飾 附屬品은 冠, 梳, 釵, 褌, 帶, 履, 襪이 있었고, 褌, 袴, 襪袴 등 이 논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男子의 것이 女子의 것보다 그 수량면에서 적었으며 단순하였다.

參考文獻

- 嘉禮都監 儀軌.
廣解 大玉篇.
- 金東旭, 李朝前期 服飾研究, 서울:韓國文化研究院, 1963.
- 金東旭, 韓國服飾史 研究, 서울:亞細亞出版社, 1979.
- 金富軾, 三國史記, 民族文化推進會刊, 1973.
- 金富軾, 金鍾權 譯, 三國史記 서울:大洋書籍, 1972.
- 김부식,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실 옮김, 北譯 三國史記, 서울:신서원, 1959.
- 김부식,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 서울:올유문화사 1983. 1997 개정판.
- 韓國 精神文化 研究院, 譯註 三國史記, 서울:韓國精神文化 研究院, 1997.
- 金英淑 編, 韓國服飾史 辭典, 서울:民文庫, 1988. 尙方定例.
- 柳喜卿,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80.
- 李喜煥 纂, 物譜.
-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白楊堂, 1947.
- 李龍範,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 商人의 貿易 品”, 韓國史 學論叢, 1960, pp. 95-104.
-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 세종기념사업회, 1974.
- 李宰, 四禮便覽.
才物譜.
- 홍대경, 홍무경, 조석의복, 혼인제도의 연구, 서울, 乙酉文化社, 1948.
- 康熙字典.
- 高承, 事物紀原集類, 台北:新興書局 中華民國 58 年.
- 王字清, 韓國服裝史綱, 台北:中華大典編印會, 1969.
-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商務印書館, 1964.
- 周迅, 高春明, 中國歷代婦人妝飾, 台北:南天書局, 1988.
-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台北:丹青, 1983.
- 中文大辭典.
- 中華五天天文物集刊 編輯委員會, 服飾, 台北:中華五天天文物集刊 編輯委員會, 中華民國 75 年.
- 張其昀 監修, 程光裕, 徐聖謨 主編, 中國歷史 地圖 上下, 台北:中國文化大學 出版部, 1980.
- 太平御覽, 台灣:商務印書館.
- 原田淑人, 唐代之 服飾, 東京:東洋文庫, 昭和 45.
- 朝鮮總督府 中樞院, 高麗以前의 風俗關係 資料撮要, 朝鮮總督府 中樞院, 昭和 16年.